

| 국제노사정기구연합 파리 총회를 가다 |

문성현 위원장, 국제노사정기구연합 총회 참석

손욱이 전문위원

전 세계 사회적 대화기구의 총회, 국제노사정기구연합(AICESIS) 총회 참석을 위한 경사노 위 대표단은 인천공항에 집결했다.

구름 위에서의 12시간이 흘러 어느덧 '빛의 도시'라고 불리는 파리에 도착했다. 숙소로 가는 길, 어둠 속에서 저 멀리에 있는 에펠탑이 우릴 반겼다.

9월 17일 첫 날의 공식일정은 국제노사정기구연합(AICESIS) 총회 참석으로 시작되었다. 이번 총회는 프랑스 경제사회환경위원회(CESE)에서 열렸다.

프랑스 경제사회환경위원회는 상·하원 외의 '제3의 의회'로 일컬어지는 곳으로 18개 그룹 233명의 위원들이 노동, 고용, 경제, 금융, 사회, 보건, 환경 등에 대한 사회적 의제를 논의하고 정부와 의회에 자문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프랑스 경제사회환경위원회 회의장을 가득 메운 각국의 대표단을 보니 각국의 사회적 대화 발전을 위해 주도적으로 협력을 도모한 프랑스 경제사회환경위원회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회의장을 가득 메운 국제노사정기구연합 회원국 대표단

국제노사정기구연합(AICESIS)은 1999년에 프랑스경제사회환경위원회의 주도로 설립되었다. 아프리카·중남아시아·유럽 대륙의 거대 국가의 세계경제사회위원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s)들 간의 국제기구로 경제사회 파트너들 간의 사회적 대화 촉진 및 사회적 대화기구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는 2003년 6월에 가입하여 2009년부터 현재까지 이사국으로 활동 중이다.

프랑스 경제사회환경위원회(CESE) 패트릭 베르나스코니(Patrick Bernasconi) 위원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국제노사정기구연합 총회의 막이 올랐다.

패트릭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디지털 전환에서의 연대(solidarity)’를 강조했다.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한 정부가 각 나라의 문제를 홀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지역사회, 시민, 정부 모두 공동의 노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디지털화를 이룩하자”고 말했다.

첫 오찬은 프랑스 노동자총연맹-노동자의 힘(CGTF-FO) 마조리 알렉산드르(Marjorie Alexandre) 국제협력국장과 함께했다. 초대 현장 출신 위원장으로서 노조대표와 파리에서 만나 직접 현장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다는 취지에서였다.



노동자총연맹-노동자의 힘(CGT-FO) Marjorie Alexandre 국제협력국장과의 오찬

문성현 위원장은 프랑스 5대 주요 노조 간에 어떻게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상호 간 의견을 조율하는지를 물었다. 양대 노총만을 가진 우리로서는 5대 노총 간의 협조가 정말 가능한 일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었다.

마조리 알렉산드르 국제협력국장은 “프랑스 5대 노조는 상호 간의 대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선출된 신임 사무총장은 선출 직후 가장 먼저 각 노조 대표를 찾아가 프랑스 노동 개혁에 관해 논의한 바 있다”고 답했다.

또한 문성현 위원장의 현 정부의 노동개혁정책을 노조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국제협력국장은 “마크롱 대통령이 취임한 후 1년이 지난 지금의 평가는 좋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지지율 또한 14%대로 하락하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국제협력국장은 노동개혁과정에서 정부가 노동자들의 의견을 듣지 않아 발생한 안타까운 사례를 소개하기도 하였다.

“병원 간호사가 건물 지붕에서 투신했고 파리남부의 햄버거 프랜차이즈 노동자는 자신의 유니폼을 찢고 몸에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하는 등 과격해지고 있다”며, “이는 마크롱 정부의 노동개혁의 한계를 보여주는 방증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대화의 역사가 깊고 이를 중요하게 여기는 프랑스에서도 자신의 몸을 불살라서라도 노동자들의 이익과 마음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며 사회적 대화의 과정은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쉽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는 자리였다.

총회 오후 세션에서는 국제노사정기구연합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 각 국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많은 의견이 오갔다. 기구의 주체성을 강화하고, 재정적 독립성을 확대하며,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각 기구들 간의 연대(solidarity)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남미와 아랍지역에서의 활동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번 총회에서 가장 반가운 뉴스중 하나는 정말 오랜만에 신규 회원국의 가입소식이었다. 그동안 참관(observer)국이었던 세르비아가 만장일치로 국제노사정기구연합 신규 회원국이 되었다.

총회 첫째 날 막이 내리고 문성현 위원장은 프랑스 경제사회환경위원회(CESE) 패트릭 베르나스코니(Patrick Bernasconi) 위원장의 초청으로 면담시간을 가졌다.

문성현 위원장은 이번에도 프랑스 5대 노조의 역할과 상호조정에 대한 질문을 했다.

이에 CESE 위원장은 “위원회에는 5개 주요 노조뿐 아니라 10개 소수노조도 참여 중이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7년에 모든 노조를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대표성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는데, 최근 10여 년간 흥미로운 변화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영향력이 높은 노조였던 CGT와 CGT-FO는 최근 그 영향력이 축소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고, 대

신 CFTC와 5개 주요노조에 속하지 않았던 소수노조, 예를 들면 UNSA(전국자율노조연합) 등과 같은 개혁적 특징을 지니며 사회이슈에 더 영향력을 미치는 노조가 발전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흥미로운 사실을 전했다.

또한 프랑스경제사회환경위원회(CESE) 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CESE는 위원 구성 시 남녀 성비의 평등에 중점을 둔다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드러냈던 점이 인상적이었다.

공식일정의 이튿날이자 마지막 날은 총회 직후 한국으로 출국을 하게 되어 있다.

이날은 국제노사정기구연합 총회에 참석한 회원국들과 면담을 가졌다. 그중 베트남 조국전선 대표단과 면담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베트남 조국전선(Vietnam Fatherland Front)은 베트남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체제였다. 구글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은 공산당, 정부 그리고 조국전선의 3대 정치체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조국전선은 국민을 단결시키는 정치의 기초가 된다고 한다.

특징적인 점은 국회 법안을 상정하고 국회 및 지방의회 의원 입후보 명단을 작성(사실상 지명)하는 등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는 단체라는 점이다.

베트남 조국전선 부위원장은 면담을 통해 “한국과는 협력 및 공유 콘텐츠가 많다고 생각하여 노조와의 갈등해결 경험 공유와 디지털 사회로 인한 노동 및 일자리 관련 분야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희망한다”고 단도직입적으로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번 프랑스 일정은 계획된 만남 외에 현장에서 ‘즉석만남’이 많이 이루어졌다. 이탈리아 디지털분야경제인연합회 위원장, 브라질 국가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그리스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과 짧은 시간이었지만, 서로가 가진 사회적 이슈와 각국의 사회적 대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오찬은 프랑스기독교노동연맹(CFTC) 부위원장과의 면담으로 진행하였다. 조셉 투브넬



프랑스경제사회환경위원회(CESE) Patrick Bernasconi 위원장과 면담

(Joseph Thouvenel) 부위원장은 꽤 유명한 인사로 평화노선을 추구하는 노조의 성격답게 인자한 인상과 면모가 느껴졌다.

CFTC 부위원장은 한국의 사회적 대화 관련 변화는 어떠한지 궁금하다며 멀리서 보니 한국의 노조는 다소 과격한 편인 듯하다고 언급했다.

CFTC 부위원장도 정리해고의 불합리함을 표현하기 위해 센강에 목을 매달고 장관에게 호소하는 편지를 보낸 적이 있었는데, 재경부장관과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온 경험이 있다고 전했다. 센강에 목까지 매달았던 부위원장이 한국의 노조가 다소 과격하다고 언급한 것이 더욱 신선하게 느껴졌다.

프랑스 5대 노조 중 3개 노조를 단 이틀 만에 만나면서 떠오른 단어가 있다면 프랑스의 ‘플레랑스’ (관용) 정신이었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의 자유 및 다른 사람의 정치적, 종교적, 의견의 자유에 대한 존중. 서로의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며 관용을 베풀고 남이



베트남 조국전선 대표단과 면담

나에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을 본인도 하지 않는 것.

오후에 문성현 위원장은 각국의 디지털화에 대한 경험 공유의 자리에서, “지난 4월, 대한민국의 노사정대표자는 사회적 대화 의제로 ‘디지털 전환에 대비한 노동의 미래’를 선정하고, 전국적 규모의 노사단체대표, 노동부, 과기부 등 정부 관계자, 경제, 기술, 훈련, 과학정책, 여성정책 등 관련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를 지난 7월 20일에 발족하였다”고 발언했다.

이에 국제노사정기구연합(AICESIS)의 사무총장인 프란시스코 레나(Francisco Lena)는 “한국은 아시아 지역의 사회적 대화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국가로 인식하고 있으며,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사회적 대화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향후 디지털 혁명 관련 한국의 경험을 공유해 주길 희망한다”고 답했다.



각국 경험발표 시 위원장 발언

어느덧 이제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3박5일의 일정을 마치는 동안 우리가 보고 느낀 건 파리의 아름다운 거리와 건물의 웅장함보단 역사 속에서 숨 쉬고 있는 시대적 정신, 다양성을 인정하고 관용하는 톨레랑스 정신, 민주주의를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 정신이었다.

내년 국제노사정기구연합 총회에서는 노동시장의 산적한 문제들을 노사 및 다양한 계층이 참여한 사회적 대화로 해결함으로 우리의 경험과 성과를 공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인천행 비행기에 다시 몸을 실었다.